

Korean Trail 33rd Story

오대산 선재길 참된 나를 찾는 치유의 숲길

숲은 세상사에 찌든 심신을 다스려주는 힘이 있다. 아름드리나무로 덮여 있는 오대산 선재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숲길로 19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자들이 득도를 위해 오가던 길이었다. 개울가 오솔길과 징검다리, 호젓한 산길을 걷다 보면 잡념의 벽으로 단단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진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숲에서 뿔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린 샤워’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참으로 녹음이 짙은 숲길이다.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이란 현판이 붙은 월정사 일주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진한 전나무 내음이 온몸을 감싼다. 이곳에서 월정사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1km 전 나무 숲길은 경기도 광릉의 전나무 숲, 전북 부안 내소사의 전나무 숲과 더불어 아름다운 숲길로 손꼽힌다. 아름다리 전나무 1천700여 그루가 하늘을 떠받치고 서 있는 이 길은 천년 세월 동안 월정사를 지키고 있어 ‘천년의 숲’이라 불린다.

장구한 세월이 깃든 전나무 숲길은 마치 속(俗)과 선(禪)을 나누는 경계처럼 느껴진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들게 하는 숲을 걷다 보면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고사목이 눈앞에 나타난다. 지난 2006년 세찬 비바람이 숲을 덮치자 전나무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뒤 누워 있다. 태풍에 밀동만 남았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하다. 전나무는 속성수라서 다른 나무에 비해 빨리 자라고 키도 크지만 재질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에 잘 쓰러진다. 600년 전 전나무 아홉 그루의 씨가 퍼져 숲이 됐다고 한다.

마사토가 깔린 부드러운 흙길은 ‘S’자 모양으로 휘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다람쥐가 흔들여 놓은 풀잎 소리가 청량하다. 온종일 숲길에 서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금강교와 천년 사찰 월정사에 닿는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월정사는 우리나라

대표 문수신앙의 성지로, 강원 남부에 말사 60여 개를 거느린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큰 절집이다. 이 천년 사찰은 자장율사 때부터 근대의 한암, 탄허 스님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선승들이 머물러온 곳으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한 우리나라 5대 사찰 중 하나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연꽃무늬로 치장한 이층 기단과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 금동장식의 장엄한 상륜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이 눈길을 끈다.

아름드리 숲을 거니는 녹색 산보

천년의 숲길과 월정사를 지나면 일생 동안 한번은 꼭 걸어봐야 할 오대산 선재길이 시작된다. 월정사와 말사인 상원사, 두 천년 고찰을 이어주는 9km가량 옛길이다. 스님과 불자들이 득도를 위해 이 길을 걸었고, 화전민은 발알하러 다니며 이 길을 밟았다. 1960년대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446번 지방도로가 뚫리면서 옛길은 쇠퇴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 옛길을 복원해 ‘선재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선재(善財)는 불교 경전 ‘화엄경’에 등장하는 동자의 이름인데, 길에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선재동자처럼 이 길을 걷는 이들도 득도하라는 의미로 붙였다고 한다.

월정사의 샘물로 목을 축이고 숲길로 들어선다. 절 바로 옆으로 ‘깨달음, 치유의 천년 옛길! 오대산 선재길’이라는 표지판이 걸린 다리를 건너면 선재길이다. 제법 긴 나무 데크를 지나면 일제강점기 당시 목재공장이 있던 회



사가리에 닿는다. 일제강점기 오대산 울창한 숲에서 나온 나무를 벌채하고 가공 처리하였던 회사 몇 곳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회사거리에서 다시 다리를 건너면 화전민 터가 나온다. 지금은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오래전 이곳 깊은 숲에까지 들어와 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화전민의 애환을 떠올리게 한다.

계곡과 나란히 가는 선재길은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오솔길이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보메기가 눈에 들어온다. 보메기는 말 그대로 보를 세워 물을 막았던 곳으로 보막이로 불리다가 보메기로 불리게 됐다. 회사거리에 큰 공장이 있었고, 사람도 많이 거주했다고 하니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대산 우통수에서 발원한 오대천의 맑은 물이 옥빛으로 빛나고 계류는 얼음처럼 차갑다.

보메기에서 오대천을 왼쪽으로 두고 내리찍는 햇볕도 없는 숲길을 걷다 보면 썰다리 표지판과 마주친다. 아직 떼내려간 썰다리를 복원해 놓지 않았다. 썰다리는 물푸레나무·버드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상판에 썬(술가지나 작은 나무 등의 가지)을 엮어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다리다. 가을걷이가 끝나는 10월에 놓아 겨우내 강을 건넌다. 이듬해 여름이면 장마나 태풍으로 불어난 물에 떼내려가 ‘이별다리’로도 불린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걷는다. 호젓한 오솔길을 걷다가 숲을 빠져나오면 징검다리가 있는 계곡의 자갈밭이다.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월정사에 들렀다가 상원사를 찾아가던 세조가 맑은 계곡물에 이끌려 몸을 씻을 때 문수보살을 친견한 덕에 지병인 피부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급수 계곡을 끼고 걷다 물길을 만나고 숲으로 파고든다.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 음나무, 다릅나무, 신갈나무, 박달나무, 졸참나무 등



선재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9km에 걸친 숲길이다. 개울가 오솔길을 걷다가 하연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하는데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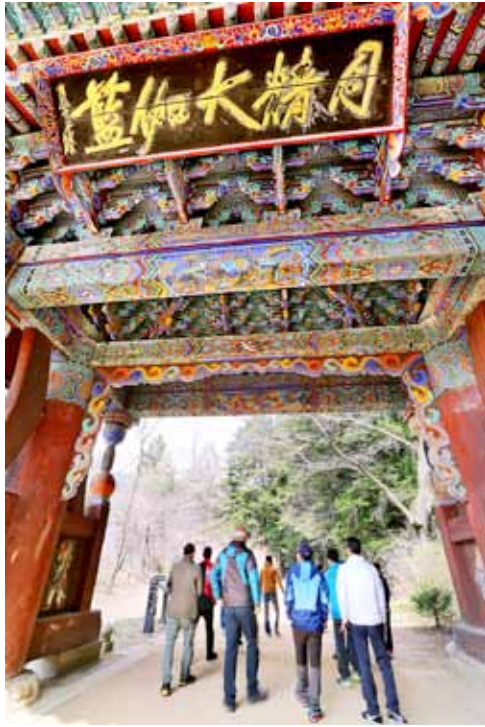
이 빼곡하게 들어선 조붓한 숲길이다. 상원사에서 선재길 걷기를 시작한 이들과 마주친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

깨덕소와 쉼터, 선재농장을 지나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오대산장에 닿는다. 오대산장 바로 옆에는 오대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30여 종을 복원해 놓은 멸종위기 식물원이 있다. 조릿대 숲길이 이어진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조용히 묵상하며 걷는다.

상원교 앞에서 지방도로와 만난다. 지방도로를 100여m 걸다가 다시 왼쪽 산길로 접어들면 또 숲길로 이어진다. 숲길을 걷다가 도로를 횡단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계곡 옆 숲길을 만난다. 완만한 숲길이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이 길이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적멸보궁에 안치하려 조심스레 걸었던 길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숙연해진다. 계곡 위쪽으로 아름다운 폭포가 이어져 있는 신선암을 지나면 선재길의 끝인 상원탐방지원센터와 상원사 주차장이다.

이곳에서 300m 산길을 오르면 오대산에 등을 기댄 상원사가 점잖게 앉아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수보살을 주존으로 모시고 있는 상원사는 신라 33대 성덕왕 4년(705)에 보천과 효명 두 왕자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상원사에는 현존하는 중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제36호)이 있고, 이곳에서 오솔길을 따라 비로봉으로 한참 올라가면 적멸보궁이 자리하고 있다.

상원사 경내를 돌아본 후 다시 상원사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월정사로 가는 버스(진부행)를 타면 된다.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숲에서 사람들은 숲과 길과 하나가 된다. 숲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한순간 동지승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일 것이다. ❶



❶ 오대산 선재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를 잇는 약 9km 숲길이다. 산행 들머리는 월정사 일주문에서 월정사까지 이어지는 1km 전나무 숲길로 잡는 것이 좋다.



❷ 전나무가 양편으로 쪽쪽 뻗어 있는 숲길은 천년 세월 동안 월정사를 지키고 있어 '천년의 숲'이라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사찰로 가는 길 중 가장 아름답다.



❸ 월정사 바로 옆에 있는 선재길 입구. 선재길은 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스님과 불자들이 주로 다녔던 오대산 옛길이다.



❹ 선재길 절반쯤에 이르면 동피골인데 이곳에 오대산장과 멸종위기 식물원이 있다.



❺ 계곡과 작은 폭포가 아름다운 신선암에서 다리를 건너면 지방도로와 만나고, 상원사 300m 아래 주차장이 나온다.

❻ 상원사 경내를 둘러보고 월정사로 돌아올 때는 군내버스를 타면 된다.
상원사 앞 버스 출발 시간 : 8시 10분, 9시 20분, 10시 30분, 11시 30분, 12시 40분, 14시, 14시 50분, 16시 20분, 17시 20분.



❹ 선재길 중간중간에 시원한 계곡과 화전민 터, 자연설치미술, 섣다리 등의 볼거리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안내 표지판만 있고, 아직 섣다리를 놓지 않았다.

❺ 오대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솔길과 계곡길이 선재길의 전부다. 길을 걷다가 고단함이 느껴진다면 쉼터에서 쉬어 가도 좋다.



❷ 멸종위기 식물원은 오대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30여 종을 복원해 놓은 곳이다. 주변을 정원 형태로 조성해 놓았다.





두타산 자연휴양림 몸과 마음을 다독여 주는 청정 자연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평창과 정선 경계에 솟은 두타산 자락에 위치한다. 옥수같이 맑은 계곡과 아름다나무들이 세상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1, 2, 3, 4 해발 1천394m 두타산 기슭에 조성된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숲 내음을 만끽하며 호젓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연립동 1동(사진을 비롯해 산림문화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동, 야영덱 25개 등)이 있다.



두타산(頭陀山, 1,394m)은 오대산에서 발원한 시원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아차골 계곡과 양탄자처럼 깔린 지피식물, 아름다나무가 어우러져 어디를 가나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전체적으로 돌산인 두타산은 계곡 주변으로 편마암과 사암 등이 수려한 계곡 풍경을 연출하고, 계곡을 오르는 길에는 원시림이 펼쳐져 한낮에도 추위를 느끼게 한다.

평창 두타산은 박지산(博芝山)으로도 불린다. 일제강점기에 동해와 삼척에 걸쳐있는 두타산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박지산으로 바뀌 불렀다가 산림청이 실시한 '우리 산 이름 바로찾기 운동'에 따라서 2007년 두타산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두타는 세속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말하는 불교용어로, 2008년 개장한 두타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빠져나온 후 정선 방향 59번 국도를 12km 정도 달리다가 국도를 벗어나 왼쪽으로 1.2km 들어가면 자연휴양림 매표소와 관리사무소에 닿는다.

매표소 초입 계곡 건너편에 25개의 덱을 갖춘 야영장이 있다. 작은 규모의 야영장으로 덱 사이 간격이 매우 좁은 편이다. 또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무다리를 건너야 한다. 화장실과 개수대 등 편의시설은 관리사무소 옆에 있다. 또 관리사무소 앞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장기판이 있다.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장기 한 판 두고 있노라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을 체험할 수 있다.

층층이 돌을 쌓아올린 돌탑과 계곡에 우뚝 솟아 있는 선비 모양의 선비바위를 지나면 연립동 1동(7인실 2실)과 산림문화휴양관 1동(4인실 16실, 12인실 2실), 숲속의 집 1동(6인실)이 두타산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신록이 하루가 다르게 짙은 기운을 더해가는 숲은 상큼하고 싱싱하다. 자연휴양림 맨 위쪽에 위치한 숲속의 집 '물봉선'은 따로 쓰는 독채로 호젓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이 좋아 며칠을 머물고 싶은 공간이다.

자연휴양림에서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과 유료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공예 체험장에서는 목걸이(1천500원), 열쇠고리(1천500원), 새피리(2천원), 나무실로폰(2천원)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관 뒤편 바비큐장 위쪽에는 숲 체험 코스와 돌탑 쌓기 체험 행사가 있다.

자연휴양림 내에 두타산 정상인 칠성대로 가는 5.9km 등산로와 8시간 정도 소요되는 13.3km의 두타산 둘레길, 8.4km의 휴양림 둘레길, 3.2km의 두타산 탐방로 등이 조성돼 있다. 등산로와 둘레길이 잘 정비돼 있어 산행에 불편은 없다.

자연휴양림 주변에는 오대산 국립공원과 월정사, 이효석 생가, 대관령 양떼목장, 봉평 허브나라, 한국자생식물원, 용평스키장 등이 있다. ❶



5 산림문화휴양관 뒤편에 있는 '숲속의 코스'에서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 돌을 다듬어 만든 장기판.

Tip

이용 방법과 요금

산 좋고 물 좋은 평창의 두타산 자연휴양림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스키장이 있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다. 침구, 식기, 밥솥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주말과 법정공휴일 이용을 선착순 예약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 연립동** 10만4천원/5만8천원(성수기와 주말/비수기 평일).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 6만원/3만4천원, 12인실 16만5천원/9만5천원. **야영덱** 6천원(입장료와 주차료 별도).

문의

두타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033-334-8815

가는 길

